

中, 사드 보복 공안 동원... 교민사회 불안

한인 불법 체류·취업 단속 강화 벌금 폭탄·추방 대책 마련 고심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 공안당국이 최근 한국인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와 선전시 교민사회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한국인 거주 주택가와 식당가 등에서 집중적으로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여권과 거주 허가증, 주숙등기(住宿登記)증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에서는 자국에 들어와 민박 등 비허가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외국인에 대해 24시간 내에 본인과 집주인의 신분증, 임대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공안기관에 가서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숙박업 관련 세금을 피하려는 임대주택이나 민박집 주인들이 주숙등기를 꺼려, 이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이번 불법 단속으로 인해 광저우와 선전의 일부 한국인은 최근 주숙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경고조치를 받거나 벌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이 주숙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최고 2000위안(32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선전에서는 비자 기한을 넘긴 체류했다가 구류와 벌금형을 받은 뒤 추

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불법체류하면 최대 1만 위안(162만8000원) 내에서 하루당 500위안을 내야 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5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불법취업의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불법취업으로 인한 소득 몰수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광저우 교민은 “중국 공안이 최근 구(區)별로 한국인이 많은 기업과 주택가, 식당가에 와서 기업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세무 등기 서류 외에 임직원의 여권, 주숙등기도 확인하고 있다”며 “단속에 걸린 이들이 주숙등기를 신청하면 집주인이

관련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선전 교민도 “주숙등기가 안된 경우 경고 처분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벌금을 문 경우도 있다”며 “한중 관계가 좋을 때는 홍콩에 다녀와 체류 허용 기간을 연장하면 묵인해줬지만, 최근에는 엄격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한국업체는 세금폭탄을 우려해 일시 휴업하거나 체류가 문제될 수 있는 직원을 재택근무 시키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내 한인교회가 다음 달 광둥성 동관(東莞)시 한인교회를 방문해 추진하려던 교류 행사를 취소하는 등 교민사회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북주의 창업주 우문태

우문태(宇文泰, 505-556)는 서위의 실력자로 북주의 사실상 창업주다. 자는 흑담이며 선비족 군인 가문 출신이다.

그는 북위 6진의 하나인 내몽고 무천진 출신으로 부친 우문공은 북위 말년 하급 군인이었다. 부친 사후 반위 선봉에 선 갈영의 군대에 참여해 장령에 임명되었다. 이주영이 갈영의 반란을 진압하자 그의 부장인 하발악 부대에 소속되었다. 하발악의 신임을 얻어 핵심 참모가 되었다. 이주영이 주살되고 조카인 이주조가 반발하는 등 북위 조정의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이주조 휘하의 고훈이 낙양에 입성해 효무제를 황제로 옹립하고 산서성 진양에 막부를 설치해 실권자가 되었다.

비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인재를 등용할 때 가문만 보지 말고 능력을 봐야 한다.” “법률이 공정해야 한다”는 등 유교조서는 국정의 지도이념이 되었다. 556년 번잡한 관제를 간결하게 바꾼 6관제(六官制)를 공포했다. 부병제(府兵制)의 전신인 24군도 창설했다. ‘개부’라고 칭하는 사령관이 각각 1군을 통솔했다. 그 위에 대장군이 있고 최상에 주국(柱國)이라는 최고사령관이 있다. 우문태가 바로 서위의 승상 겸 최고사령관이 되었다.

부병제 덕에 서위의 군사력이 크게 증강되어 동위와 대등한 힘을 가질 수 있었다. 부병제에 바탕을 둔 군사제도가 서위를 계승한 북주가 동위를 계승한 북제를 멸망시키고 하북을 통일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는 신하들의 충

중국 업체들 롯데마트 조직적 납품 거부...80% 휴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용 부지를 제공해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의 타깃이 된 롯데그룹의 중국 롯데마트에 조직적인 납품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롯데마트에 집중되면서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중국 동북3성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롯데마트 99개 중 중국 정

부 지사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및 매장 앞 시위 등으로 자체 휴점을 결정한 점포가 모두 80여 개에 달한 가운데 납품업체 이탈이 이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지난달 말 롯데와 한국 국방부가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국 매체들이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내면서 중국 내 반(反)롯데 정서가 확산돼 롯데마트에 납품해온 중국 업체들이 잇따라 상품을 철수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지역 유통업계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사드 사태 이후 롯데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롯데에 제품을 납품하면 비애국’이라는 정서가 확산됐다”며 “이 때문에 지금까지 롯데마트에 납품하던 벤더(vendor·판매상)들이 제품을 모두 빼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롯데마트에서 자체 조달하는 제품은 롯데질성 등 국내 제조사의 음료수 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롯데측

이 중국 벤더로부터 납품받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에 납품해온 벤더들의 이탈로 유통 수익구조가 붕괴할 형편이라는 설명이다.

오프라인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물에서도 롯데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최대 쇼핑몰의 하나인 Tmall(텐마오·天猫)가 이달 초부터 롯데제품 구입을 배제했고, 온라인 화장품판매업체인 위메이오우핀(聚美优品)은 자사 SNS를 통해 ‘롯데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실권 장악...인사·납세·군 개혁 단행

그는 하발악에게 아래와 같이 하북 통일과 큰 그림을 제시했다. “고환이 감히 권력을 찬탈하여 자립하지 못하는 까닭은 장군이 간섭하지 않을 때 두려워서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갑속성을 장악하고 그런 다음 서쪽으로 저쪽과 강쪽을 정벌하고 북쪽으로 사막 변경까지 힘을 뻗치고 장안으로 군대를 돌려 북위 조정을 바로잡으면 된다.” 그러나 하발악은 534년 정적 후막진열의 계략에 말려 피살되었다. 이에 잔여 세력이 우문태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다. 그해 7월 고훈의 전횡을 못이겨 탈주한 효무제를 장안으로 맞이해 서위를 건국했다. 고훈은 원선견을 효정제로 세우니 동위다.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분열되었다. 동년 12월 효무제를 독살하고 조카인 원보거를 문제로 옹립하는 한편 자신은 태사, 대총제가 되어 군권을 장악했다.

성과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당나라 때 중신 영호불은 우문태 당시의 서위를 “재야에 남은 인재는 없고 조정에 군자가 많구나”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낙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전제를 회복해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했다. 성인의 군대 복무 연령을 15세에서 18세로 늦추어 농업 생산에 투입했다. 납세제도도 과감히 개혁했다. 풍년이 들면 세금을 전액 내고 생산량이 반이면 반만 내고 흉년에는 3분의 1만 내도록 했다. 노동력을 징발할 때도 백성들의 요역이 과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소자, 나병 등 한족 관료의 조인을 받아 한화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한족과 선비족의 통혼을 장려하고 한족 문화를 지원했다. 호한(胡漢) 민족의 융합과 국력 신장을 도모하였다.

서위는 동위에 비해 인구나 면적이 적고 경제도 낙후되었다. 그는 한인 귀족 세력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굳건히 하였다. 다수의 한인 관료를 조정에 발탁했다. 학문이 뛰어난 소자를 승상급인 행태자승으로 승진시켰다. 소자는 기장법과 호구조사법을 제정해 부역을 끌고 부담도 줄였다. 소작이 작성한 부국강병을 위한 6가지 지침인 ‘육조조서’를 공포했다. “장권을 진 사람은 마음이 곧아야 하고 시

556년 임종을 맞았다. 조카 우문호에게 “내 여러 자식들이 모두 어리고 밖의 도둑들이 아직 강성하다. 천하의 일이 내에게 달려 있다. 노력해서 나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그는 영웅호걸을 제하여 그 힘을 쓸 수 있었다. 성격이 질박하고 소박함을 좋아해, 헛된 가식을 숭상하지 않았다. 정신이 밝고 통달했으며, 유교를 숭상하고 옛 것을 좋아했다. 서위 조정은 실권을 장악한 우문호에게 선위를 강요받았다. 이에 북주 왕조가 성립되었다.

스티븐 호킹 “우주여행 가기로 했어요”

영국 업체 버진 갤럭틱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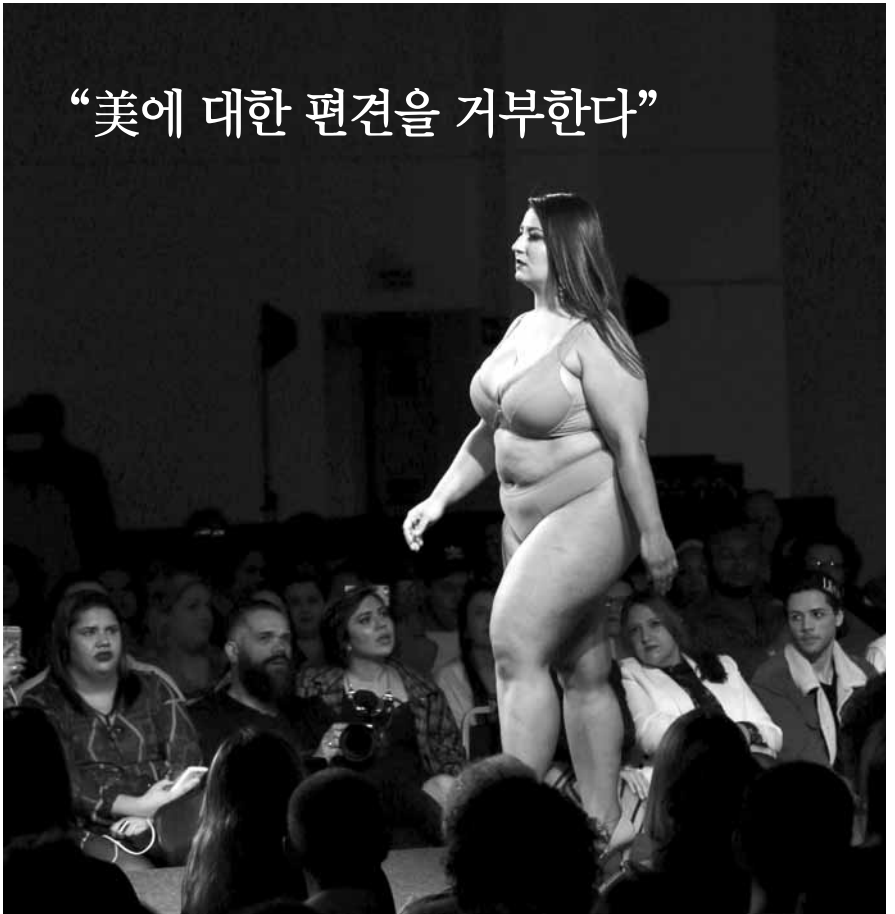
세계적인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75·사진) 박사의 우주 탐사 꿈이 실현될까.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우주관광업체 버진 갤럭틱을 설립한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호킹 박사에게 우주 탐사 기회를 제시해 호킹 박사가 이를 수락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호킹 박사는 영국 방송 ‘굿모닝 브리튼’에 “브랜슨 회장이 버진 갤럭틱에 자리 하나를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해 곧바로 수락했다”며 우주여행을 제안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호킹 박사는 “우주여행은 행복한 일이 될 것”이라며 “그 누구도 나를 데려가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영국의 과학 역만장자 사업가로서 손꼽히는 브랜슨 회장은 우주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버진 갤럭틱을 설립해 상업용 우주여행선을 개발 중이다.

호킹 교수는 방송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브렉시트가 “우리를 고립시킬 수 있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플러스 사이즈 패션 위크 행사 중에 도중 한 모델이 비주얼리브리의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상가 건물 매매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 투자 전문

<h3>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h3> <p>전원주택 강력추천</p> <p>■ 광주에서 4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용2천) 	<h3>동구 수기동 상가매매</h3> <p>20층 중 6층 ◆ 평수 45평</p> <p>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주차 완비</p> <p>■ 보 1천만-월 70만</p> <p>▶ 시세 1억6천 매가 1억3천(용5천)</p>	<h3>상무지구 상가매매</h3> <p>10층 중 6층 (23평) 코너자리</p> <p>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p> <p>보 500만 월 44만</p> <p>◆ 매가 8천 300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갈끔) 매가 2억3천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관망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h3>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를권추천</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구 수기동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보로 4억, 5억씩 2분 ▶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 광안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료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 남구 주월동 (상가주택) 토 50평 건 27평 장산초등학교 인근, 원룸밀집지역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9천8백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총 층 33개 월수익 1,000만이상 / 문선역 1분 ▶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수원지구 (1층 식당상가) 토 74평, 건 47평 수원지구 국민은행 뒤 주차 완비 / 식당 최고 자리 ▶ 감정가 8억5천 → 최저가 5억9천
---	---	---	--